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우동 한 그릇

문화평론가 이어령과 범정스님이 극찬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일본 열도를 뜨거운 감동의 눈물로 흔들었던 구리 료헤이의 소설 '우동 한 그릇'을 무대에 올린 작품으로, 15만 명 이상의 관객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었으며 상인 정신이 전하는 따뜻한 마음과 훈훈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연극.

❖일시 : 2월 19일(목)~20(금) 19:30
2월 21(토) 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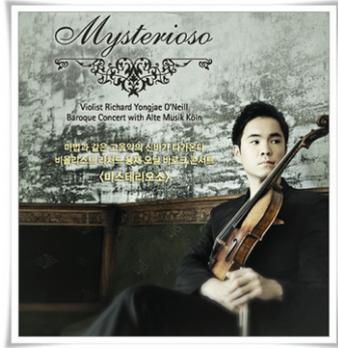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대상 : 초등학교이상 관람가

❖입장료 : R석 20,000원
A석 15,000원



리처드 용재 오닐 바로크 콘서트 <미스테리오>



한국 최고의 클래식 스타 연주자로 급부상한 리처드 용재 오닐이 정통 바로크 악기로 들려주는 새로운 음악 이야기로 세계적인 고음악 단체, 알테 무직 퀴르과 함께 하는 놓칠 수 없는 감동의 무대!

❖일시 : 2월 26일(목) 19:3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대상 : 초등학교이상 관람가

❖입장료 : R석 40,000원
A석 30,000원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운영 : 3월~5월

❖모집 : 2. 1 ~ 2. 28

❖접수 : 방문 및 전화접수 (선착순)

❖수강료 : 3개월 90,000원 (유료회원 10%할인)

강좌명	강사	시간	대상
어린이연극교실	김용택(사다리연극놀이강사)	화 16:00~18:00	초등1~2학년
현대미술의 담론과 현장	이재연(경희대학교수)	수 14:00~16:00	성인
연극교실	정상철(전국립극단장, 연극배우)	목 14:00~16:00	성인

연은숙 섬유공예작품전

❖일시 : 2. 9 ~ 2. 14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4층
노원아트갤러리

❖작품(작가)소개 : 기발한 소재와 대담한 실험정신으로 독특한 작품세계 형성하고 있다. 대량 생산, 소모되어 폐기되는 문명의 상징인 폐신문, 폐잡지, 비닐 등은 작가의 손끝에서 감성적인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접수 및 문의 : 노원문화예술회관 (☎3392-5721~4)

지역의 이모 저모

상계지역교회연합회(대표 조성규)는 쌀10kg 100포를 중계동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100세대에 전달했다.

노원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모은 성금 9,050,000원, 구립어린이집 협의회가 성금 10,891,590원,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 8,756,000원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청소행정과 참사랑나눔회 환경미화원은 성모장애인보육원에 쌀 25포를 전달하고 보육원생을 격려했다.



재단법인 유경재단(이사장 한상일)이 쌀20kg 250포를 저소득장애인 250세대에 지원했다.

부메랑봉사단(회장 최복희)은 직접 만든 호박죽을 판매한 수익금 전액과 회원들의 성금 289,000원을 기탁했다.

서울시의회자원봉사단이 중계동 104번지 일대 저소득층 10가구에 연탄 2,000장을 배달했다.

월계동 호호어린이집 원생들이 돼지 저금통에 모은 성금 462,190원, 새광염교회(대표 안만호)가 바자회를 개최해 얻은 수익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월계2동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노원지회(지회장 박기철)에서 성금 200만원과 백미400kg을, 을지병원교회(원목노회)에서 라면 100상자를, 익명의 기부자가 성금 177,330원을 전달하였다.

월계3동 노원전사회(대표 임순분)가 녹천마을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20가구에 연탄 2,000장을 후원했으며, 남양유업(지점장 박경진)이 저소득층 10가구에 쌀 20kg 1포씩을 직접 배달했다.



공릉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신청맞이 1센터2농촌사랑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고 동신아파트 부녀회에서는 노원두레푸드마켓에 성품을 전달하였다.

하계동 하림교회(담임목사 정언웅)는 쌀 130kg을 어려운 이웃 130세대에 직접 전달했다.

중계동 어린이집(원장 김영아) 원생들이 모은 성금 255,000원을 기탁했다.



중계2·3동 국제로타리 3650 지구 서울 노원로타리클럽 (회장 차동순)은 저소득 40가구에 쌀 20kg 씩을 후원했다.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와 문화스포츠펀터를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시설로 지정했다.

상계6·7동 주공1단지아파트(동대표 윤석규, 관리소장 이기호)는 단지내 생

활이 어려운 세대에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상계8동 마을문고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리모델링에 들어갔으며, 주민자치센터에 노래교실이 새로 개설되었다.

상계9동 마을문고가 리모델링을 통해 북카페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확장 공사를 실시하였다.

상계10동 총각수퍼마켓(대표 정승경)에서 508,000원을 기탁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과자를 판매한 수익금 287,50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2009년

노원구의 발전은 멈추지 않는다 !!

이노근 구청장 당현천,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현장 점검



노원의 새로운 명소가 될 당현천 상류 문화구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점검중인 이노근구청장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제3공구) 현장 모습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지난 19일 당현천 및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현장 등 지역 내 공사장을 둘러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구청장은 당현천 방문현장에서 하천 배수로의 폭과 조깅 코스 및 자전거 길 내비 등을 확인하고 주민 안전 문제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간 동부

간선도로 확장 공사현장인 제3공구 구간을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로부터 진행사항을 보고 받았다. 또 공사구간 옆 내부 고가차도 하부를 녹지공간화 할 계획이란 보고에 대해 구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등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당현천은 현재 4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까지 90%를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주민들에게 선을 보인다.

이와 함께 동부간선도로는 현재 공사 중인 3공구에 이어 오는 2월 1·2공구 구간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12년 완공된다.

(취재 장주현, 사진 임창현)



구청장 신년사

존경하는 62만 노원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8년을 뒤로하고 2009년,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래 이맘때가 되면 우리들의 머릿속엔 이런 저런 새해 설개로 가득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예년과 달리 여러 어려운 난관들이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의 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지난 오일쇼크나 IMF환란 등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 된 응집력을 바탕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낸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인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준비하고 노력해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꿈과 희망은 꼭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사실 돌아켜 보면 지난 한 해 우리 노원구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대내외적 결실을 거둔 '도약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노원구가 『살기 좋은 도시 전국 1위, 서울시 자치구 중 범죄 없는 도시 1위, 교육지원 사업 1위』 등 뉴스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서울 동북부의 변방, 베드타운이란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실히 탈피한 한 해였습니다.

이는 노원의 숨겨진 가치의 재발견이자 재창조로, 이 지역의 이미지 쇄신은 물론 자산 브랜드 가치를 한층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노원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계 뉴타운사업 확정,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 착공, 당현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추진, 시립미술관 노원캠퍼스를 유치하였습니다. 또 성북역 민자역사

MOU 체결, 노원역 문화의 거리 조성, 수락산 불암산 국립공원 수준 으로의 업그레이드, 노원마들스타디움 준공 등 여러사업을 벌였습니다. 이어 공릉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과 갤러리 파크 완공, 영어과학공원 조성 등 구정의 각 분야에 걸쳐 가시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삼은 공격적 투자마케팅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표해 복지재정분담비, 공동세, 조정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 등 4대 재정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결과 우리구는 약 800억원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또 서울시로부터 16개 인센티브 사업에서 총 23억여 원의 상금을 받아 주민편의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를 비롯 노원구 공무원들과 구민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이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에 매진

구민 여러분!

저는 금년에도 이러한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살기 좋은 도시 노원에서 잘사는 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는데 헌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창동차량기지 및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선 1단계로 경찰청과 협의, 면허시험장의 이전 및 대폭 축소를 통해 잉여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성북역 역세권 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공릉동 법원단지 이전후 활용방안 수립 등 공릉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고 상계뉴타운 사업의 가시화 등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프리미엄급 아파트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둘째 교육 문화 1등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교육의 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본격 운영, 영어과학공원을 준공하겠습니다. 또 공릉동 법원단지 이전 후 도서관 유치 등 교육타운을 조성하며 시립미술관 노원캠퍼스를 설계하고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상계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추진 등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자연과 환경의 부가 가치 증대에 힘쓸 것입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계획을 수립, 서울 국제 소호거리 등 테마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현천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수락산 동막골 산정호수 조성 추진, 석계역 광장에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공릉배수지내 축구장 및 실내 배드민턴장을 완공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규제 완화 등 창의혁신 아이디어 행정을 적극 펴,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한편 투자마케팅을 활용한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권 지역 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도처에 깔려 있는 강남북 차별요소를 발굴해 이를 해소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은 물론 여성 등 각계각층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복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금년에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강의 일들입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러한 구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이 지역의 자산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구민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애정과 격려, 충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 당부 드리며 희망과 도약의 기축년 새해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

노원구청장 이노근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달현 의원



지난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최선을 다해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환희 의원



2009년은 공릉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할 원동력의 해가 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미래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두완 의원



지난해는 정말 힘들었지만 구의 여러 상황이 좋아진 부분도 있는 만큼 올해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용기 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용 의원



새해에는 경제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기대와 희망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철현 의원



지난해 이룩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기축년에도 잘 사는 도시 노원, 강북의 으뜸 도시 노원, 노원의 르네상스를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은 의원



주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9년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의회 의장 신년사



노원구의회

안녕 하십니까? 노원구의회 의장 김성환입니다.

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은 저물어가고 희망찬 기축년이 밝았습니다. 올해 한해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개개인의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국민 모두 건강하며, 살림살이도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민족고유의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고 잘 지켜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에 대한 밝은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도약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 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노원을 건설하기 위해 제5대 노원구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2년6개월이 지나고 제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지도 5개월여가 경과 되었습니다.

연구하는 의회, 알하는 의회, 열린의회 노력

우리 노원구의회는 지방자치라는 원숙한 기반위에 국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5대 노원구의회 의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의회, 대화하는 의회를 목표로 타협과 화합을 통해 모든 갈등을 극복하여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의회, 따뜻하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의회가 되도록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새해에 떠오르는 뜨거운 태양은, 국민 여러분의 커다란 포부이며, 새해 아침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은, 국민여러분 모두의 강한 기운인 것입니다.

우리구 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도와주신 노원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 아침에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기축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의장 김성환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

노원구의회(의장 김성환)가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19일까지 2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제170회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구청, 동주민센터, 산하기관 등) 및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는 '부서 친절교육 강화' 외 59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중계근린공원 내 있는 팔각정 노인정 보수' 외 71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자동차 자가정비 교실운영 활성화' 외 100건 등 총 233건에 대해 시정 또는 건의요구를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일반안건 14건을 처리하고, 아울러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에서는 집행부의 수정동의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후 제4차 본회의에 회부, 2009도 사업예산을 확정 의결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관련 주민공청회' 개최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광호)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19일 북부고용지원센터 10층 대강당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단체와 교수, 교장 및 교사 등이 참여해 조례제정을 놓고, 시민단체측은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인 반면 학교 관계자들은 현장의 과중한 업무 등을 들어 어려운 입장을 주장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강남·북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채택

노원구의회(의장 김성환)는 지난해 12월19일 열린 제170회 정례회에서 이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의원

17명이 서명한 '서울 강남·북 차별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노원구의회가 채택한 강남·북 차별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촉구안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더 이상의 강북 차별이 없도록 법적 제도장치 마련을 위해 가칭 『강북차별금지조례』제정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권한의 대폭 이양을 촉구한다.

셋째, 서울 강북지역 모든 자치구 및 의회는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강북지역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함께 동참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등 3개 항으로 이루어졌다.

(노원구의회 ☎ 950-4094)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회장 이 훈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들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부회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태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해도 교육 특구로서의 가치성을 새삼 평가하고 우리의 교육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광호

올해도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과 견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더욱 더 열심히 일하는 한해를 보내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2009년도 시작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참고 견디면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평소와 같이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하며 뚝심 있게 열심히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론에서 본 노원

2009.1.2 한국경제 A33면

한경에세이

이 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lng5238@hanmail.net

황소와 여우의 지혜

새해가 밝았다.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런 저런 새해 설계로 가득차 있다.그러나 금년은 예년과 달리 소망하는 일들을 불가피하게 수정 또는 축소해야 할 형편이다.미국 발 경제위기의 파고가 높아 국가 경제가 위기상황이고 보니 피부에 와 닿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도 시원찮은 판에 정치권은 서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들리는지 마는지 서로 힘자랑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 힘자랑이라 말하니 힘센 동물이 떠오른다.마침 금년이 소피 해다.농부를 도와 열심히 논밭을 가는 소를 통해 우리는 우직과 근면, 순한 집승으로 인식하고 있다.그러나 투우경기를 보면 순한 소도 적의 공격 앞에서는 뾰족한 뿔로 들이받고 발길질을 하며 자신을 방어한다.하지만 평상시엔 선봉리 공격하지 않고 뿔을 좌우로 흔들며 위엄을 지킨다.힘을 바탕으로 뿔을 무기로 삼는 황소지만 함부로 그 무기를 뽐내지 않는다.그저 보여주는 것만으로 상대에게 위협을 줄 뿐 선제공격을 삼간다.그것만으로 평화를 유지한다.

힘의 상대적 개념으로 꾀(지혜)가 많은 동물이 있다.바로 여우다.우리는 여우를 꾀가 많은 동물로 여긴다.실제 여우는 귀가 밝고 의심이 많은 동물이다.사람들은 수레를 끌고 얼음이 언 강을 건너기 전 얼음의 두께를 가늠하기 위해 먼저 여우를 건너게 했다고 한다.얼음 위를 기어가던 여우는 얼음의 두께가 얇아 위협을 느끼면 바로 되돌아올 정도로 청력이 좋다.여우는 뛰어난 청력과 영리한 두뇌가 무기다.그렇다고 함부로 잔꾀를 부리지는 않는다.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잔재주를 뽐내다가는 제 꾀에 빠져 강물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화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생존방식이 아주 대조적인 황소와 여우의 예를 통해 황소는 힘이 세다 해서 그 힘을 믿고 뿔을 아무 때나 휘두르지 않고 자제할 줄 알며, 여우는 청력이 뛰어나고 영리하다 하여 잔꾀나 술수를 함부로 부리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종족을 보존해 가는 생존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봤다.

우리는 이제 해가 바뀌어 나이 한 살씩을 더 먹었다.나이의 무게만큼이나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경제위기다.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우리 국민은 오일쇼크나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낸 저력을 갖고 있다.어려운 때일수록 힘자랑 꾀자랑을 통한 대결이 아닌 서로를 양보하며 이해와 격려, 이웃을 돌아보는 자세가 더욱 절실하다.특히 정치권은 황소와 여우의 지혜를 교훈 삼아 새해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민 아이디어 고가(高價) 매입

- ▷운영기간 : 연중
- ▷대상 : 구민 누구나
- ▷매입대상 :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법령 개선 사항, 저탄소 대책 및 친환경 에너지 절감 방안,구 수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기타 구민생활 편의증진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 등
- ▷제출방법 : 홈페이지(<http://www.nowon.kr>), 방문, 우편
(창의혁신과 ☎ 950-43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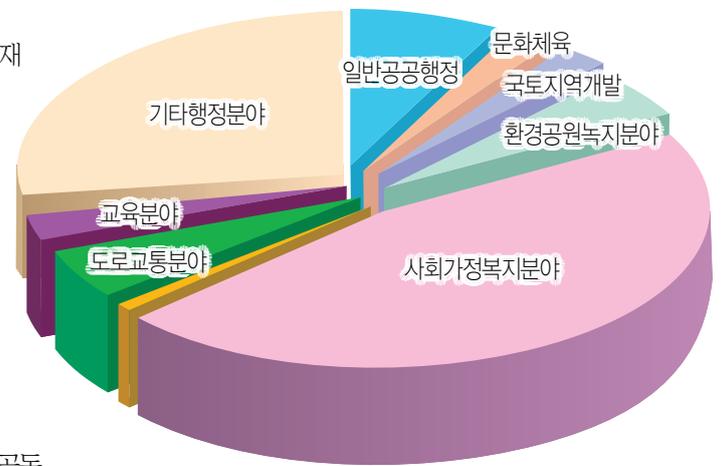
노원구 새해 살림 규모 3천 894억

2008년 보다 10.4% 늘어난 3천 894억 3400만원 확정

2009년 구의 예산이 확정되었다. 일반회계는 3천 774억 7900만원으로 11.7% 증가했으며 주차장 등 특별회계는 119억 55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8.8% 감소했다.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의존재원은 부동산 교부세 33억 1천만원, 조정교부금 1천 198억 6천만원, 자동차 면허세 세수보전금 22억 7400만원, 국고보조금 834억 3000만원, 시비보조금 583억 3200만원이다. 면허세, 재산세 등 자체재원은 1천 102억 7300만원이다.

2009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시행과 조정 교부금 증액 등 구의 노력으로 재정이 확충되어 각종 공원 정비와 도로시설물 확충 등 주민 편익사업 분야가 크게 증액된 점이다.



(기획예산과 ☎ 950-3061)

노원구 2009년 사업예산 조기집행 경제회생에 앞장

구는 2009년 사업예산을 조기집행, 경기 불황을 극복하려는 국가적인 경제 회생 정책에 동참한다. 구가 새해 집행할 순수 사업예산은 총 640억원이다. 이중 상반기내에 550억원을 조기 발주, 450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예년의 경우 관행적으로 하반기까지 집행하던 것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구 청사 IP 전화기 구축',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 공사',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 센터 건립' 설계 등을 들 수 있으며 부구청장을 실장으로 하는 '비상대책 상황실'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구 관계자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집중 집행하여 조기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며 "예산 조기 집행 대상 사업을 인건비와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월정 급여액 등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과 ☎ 950-3065)

2009년부터 월계동 경계 변경

- ▷월계1동 : 기존 월계1동(1,2,22,23동 제외), 월계4동(1~12,30동 편입)
- ▷월계2동 : 기존 월계2동, 월계4동(13~19동 편입)
- ▷월계3동 : 기존 월계3동, 월계1동(1,2,22,23동 편입), 월계4동(20~29동 편입)
- ※유휴 청사활용
월계4동 청사 → 보건지소 및 문화스포츠 센터

(자치행정과 ☎ 950-3026)

노원애향장학회 장학생 선발

- ▷선발인원 : 00명
(고등학생 20%, 대학생 80%)
- ▷선발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성적 우수자
- ▷신청기간 : 2.1 ~ 2.28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노원구 거주 1년 이상 학생
- (각동 주민센터, 장학회사무국 ☎ 938-0312)

하영호 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 ▷선발인원 : 12명(학기당 1백만원, 2.8월 지급)
- ▷지원자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차상위 저소득세대 자녀로 서울시 4년제대학 3학년이상 재학생 중 학점 3.0이상
- ▷접수기간 : 2월 4일까지
- (각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 ☎ 950-3002)



새해 구정 이렇게 달라져요!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개편(시행일 1.1)

구는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고, 일부 동 주민센터는 통폐합되어 21개 동에서 19개동으로 조정, 주민자치과는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되었다.

(총무과 ☎ 950-3020)

무임용 RF교통카드 도입(시행일 : RF교통카드-2008. 11. 27, 단순 무임카드 - 1월)

1회용 무임승차권을 RF교통카드로 전환하여 지하철을 탈 때마다 승차권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서울시 교통정책담당관 ☎ 6321-4379)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시행일 1.1)

구의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이

둘째아는 5만원 → 10만원

셋째아는 20만원 → 30만원

넷째아 이상은 20만원 →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지원대상 기준은 노원구에 1년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된다.

(가정복지과 ☎ 950-3490)

중랑천, 녹천교 자전거대여소 설치(시행일 4월)

중랑천 녹천교 옆 제방부지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며 자전거는 여성용, 남성용을 구분하여 총 60대, 헬멧은 25개를 대여한다. (교통지도과 ☎ 950-3488)

경로당 순회 호도안마시술 및 안마강좌 개설

(시행일: 호도안마-2009.1.1, 안마강좌- 2009. 3. 1)

구는 관내 238개 경로당에 주 3회 순회하여 호도안마시술을 제공하며 또한 주 2회 노인안마강좌를 개설·운영한다. (노인복지과 ☎ 950-3516)

수락홀 문화공연장 개방시간 확대(시행일 2.1)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5층 수락홀 문화공연장이 문화예술행사, 예술품 전시, 어린이 학예발표회 등을 위해 시설 대관(개방시간 평일 09:00~21:00, 토·일 10:00~ 21:00 로 확대 시행)

(수락홀 문화공연장 ☎ 950-3557)

120 다산콜센터, 휴대폰 문자상담 서비스 실시(시행일 3월)

120 다산콜센터에 민원상담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면 상담원이 접수받아 답변을 제공하는 양방향 문자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시시민고객담당관 ☎ 6361-3313)

국내 최초 조선시대 묘(墓) 석인상 전시공원 개방 월계동 비석골 근린공원에 문관상, 동자상, 망주석 등 총 31기 전시

구는 국내 처음으로 《조선시대 묘(墓) 석인상 전시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월계동 779번지 비석골근린공원에 들어선 전시공원은 면적이 8,000㎡로 월계동 영광학원, 공릉동 경춘선 철로변, 수락산, 불암산, 상계동 도선사 입구 등에 흩어져 방치돼 있던 석인상들을

한데 모아 문관상(文官像) 13기, 동자상(童子像) 6기, 망주석(望柱石) 8기, 비석(碑石) 2기, 상석(床石) 2기



또한 장소적 특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전시하고 상세한 안내판도 설치하고 산책로 조성, 의자, 벤치, 조명 등 공원내 편의시설을 정비해 편안하고 쾌적한 주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했다.

(문화과 ☎ 950-3412)

즐거운 고향길, 안전점검은 생명확인입니다

주변에 위험요인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합니다. (치수방재과 ☎ 950-3142)

2009년 한 해 동안 활동할 노원구소식 취재기자



문영숙
중계본동거주



윤덕희
공릉동 거주



이양미
월계3동 거주



이미경
월계2동 거주



김주락(대학생)
중계동 거주

따뜻한 노원 ...

희망2009 따뜻한 겨울보내기 캠페인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으로 1월16일 현재 성금 1,207건 491,991,832원과 성품 124건 209,644,510원이 모금되어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금·성품 모금

▷기간 : 2월 28일까지

▷접수장구 : 노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각 동 주민센터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 323-4836)

(각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 ☎ 950-3002)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접수 : 1월 30일까지

▷대상 : 2008.10.27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로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신용불량자 제외)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에 상응하는 금액 추가 3년 적립(서류 및 면접 선별)

(주민생활지원과 ☎ 950-4435)

'꿈나래 통장' 사업

▷접수 : 1월 30일까지

▷대상 : 2008.10.27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신용불량자 제외)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3만원)에 상응하는 금액 추가 7년 적립(서류 심사)

(주민생활지원과 ☎ 950-4435)

'소외계층 1:1 희망나눔' 결연사업

▷대상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가정, 중증 장애인 등

▷후원방법 : 우리은행 801-122478-01-025

(월계종합사회복지관)계좌 입금

(주민생활지원과 ☎ 950-3002)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

▷기부 대상 업체 :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위생 서비스, 문화·예술 서비스, 외식·생활용품 구입서비스

▷기부업체 선정시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스티커 제공 및 3개월 경과 후 현판 제공

(주민생활지원과 ☎ 950-3002)



노원구립 실버악단 창단 및 단원 모집

- ❖접수기간 : 1월 30일 까지
- ❖접수방법 : 응시원서 직접 제출 및 우편접수
- ❖모집부분 : 단장 및 단원 10명 내외
- ❖모집악기 :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기타, 드럼, 오르간, 기타 악기 등
- ❖단원대우 : 매월 소정의 사례비 지급, 단복, 연습실, 일부 악기 제공
- ❖응시자격 : 단장(노원구에 거주하며 음악적 소양을 갖추고 덕망과 리더십이 있는 어르신) 단원(노원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적격자 부족시 나이제한 없이 선발
- ❖심사일시 : 2. 11(수) 10:00
- ❖심사장소 : 상계3·4동 복합청사 공연실 (5층)
- ❖심사방법 : 자유곡 1곡 무반주 연주
- ❖합격자 발표 : 2. 13(금)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접수 및 문의 : 노인복지과 ☎ 950-3097

2009.1학기 노원어린이 영어교실 신청자 모집

- ❖참가대상 : 구에 주소를 둔 초등 3~6년(2009학년도 기준) 200명내외
- ❖교육기간 : 3. 2 ~ 7. 16(셔틀버스 무료 운행)
- ❖교육장소 : 삼육대학교 노원어린이 영어교실(NCEC) 전용교육관
- ❖교육시간 : 주 2회, 100분 수업
월·수 15:30~17:20, 월·수 16:30 ~ 18:20
화·목 15:30~17:20, 화·목 16:30 ~ 18:20
- ❖수강료 : 총 525,000원
(본인부담 : 250,000원, 구지원 : 275,000원)
- ❖접수 : 1. 28~2. 11(당첨자 발표 2월13일 10시 홈페이지)
- ❖접수방법 : 구 홈페이지(www.nowon.seoul.kr) 접수 후 전산추첨
- ❖문의 : 교육진흥과(☎ 950-4355), 삼육대학교노원어린이영어교실(☎ 3399-1161~2)

노원구립여성합창단 신규단원 모집

- ❖접수 : 1. 28 ~ 2. 19
- ❖부분 :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00명
- ❖자격 : 구 거주 만 25세~ 만 45세 이하의 여성
- ❖구비서류 : 응모원서 1부, 사진 (3.5cm x 4.5cm) 2매, 자필이력서 1통, 응시곡 악보 사본 3부
- ❖심사 : 2. 23 (월) 10:30 (합격자 발표 3월2일)
- ❖심사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5층)
- ❖심사방법 : 시창 및 자유곡 1곡
(문화과 ☎ 950-3088 www.nowon.kr)



노원구립청소년교향악단 신규단원 모집

- ❖접수 : 1. 28 ~ 2. 16
- ❖부분 : 건반악기, 타악기 제외한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 00명
- ❖자격 : 구 거주 중학생 (금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고등학생
- ❖구비서류 : 응모원서 1부, 사진 (3.5cm x 4.5cm) 2매, 응시곡 악보 사본 3부
- ❖심사 : 2. 20 (금) 10:30(합격자 발표 2월26일)
- ❖심사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3층 연습실
- ❖심사방법 : 자유곡 1곡 무반주 연주 (비공개)
(문화과 ☎ 950-3088 www.nowon.kr)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1월 31일까지 시중 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 950-3197, http://etax.seoul.go.kr)

여성교실 수강생 모집

- ❖접수 : 1. 28~2. 10(결과 발표 2.10 오후 2시)
- ❖대상 : 구 거주 만18세 이상 여성
- ❖방법 : 홈페이지(www.nowon.kr/lms/) 및 방문접수
- ❖수강료 : 4개월 2만원(재료비 별도)
※기초생활수급자, 새터민, 결혼이민자, 국가유공자 등 수강료 면제
※접수인원 10명 미만 폐강
- ❖교육기간 : 2. 16 ~ 5. 30
- ❖교육장소 : 노원구민회관 2층·3층 여성교실 강의실
(교육진흥과 ☎ 950-4361)

구분	강좌명	강의시간
기능반	피부관리 경력(A)	월,수 10:00~11:50
	피부관리 경력(B)	월,수 12:00~13:50
	생활미용	화,목 13:00~15:50
	홈패션	토 09:00~12:50
	현대의상(초급)	목 09:00~12:50
	의류수선(A)	토 13:00~15:50
	의류수선(B)	월 14:00~16:50
	리본아트와 선물포장	화 10:00~12:50
	네일아트	월 10:00~12:50
	메이크업	금 10:00~12:50
창업및자격증	애견미용	수 13:00~15:50
	현대의상(중급)	금 13:00~16:50
	화웨이식기능사	목 10:00~13:50
	풍선아트	수 10:00~11:50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 ▷과목 : 컴퓨터 기초반/활용반
- ▷수강료 : 월 5천원(당첨 후 무통장 입금)
- ▷교육대상 : 구 주민, 결혼이민자
- ▷접수기간 : 1.29(목)까지- 어르신기초반만 전화접수
-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nowon.kr/lms/)
- ▷결과발표 : 1.30(금) 오전10시 전산추첨
※관내 새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 이수 시 중고 PC무료 지원
※노원구민 중 거동이 불편한 신체장애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장애인 방문 컴퓨터 교육 접수 중
(교육진흥과 ☎ 950-4359)

적십자회비,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됩니다
▷모금기간 : 2월28일까지(연중 가능)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 ☎ 1577-0234
자치행정과 ☎ 950-3024)

어린이축구 및 청소년풋살교실 참가자모집

- ▷운영기간 : 3월~12월
- ▷대상 : 구 거주 초4~6학년(어린이축구, 풋살) 중,고생 (청소년풋살)
- ▷모집기간 : 2.9~ 2.20
- ▷접수 : 홍보체육과 및 각 동 주민센터
(홍보체육과 ☎ 950-3320)

생활노래교실 수강생 모집

- ▷운영 : 2.2~4.28(매주 화 14:00~16:00)
- ▷장소 : 수락홀 문화공연장(상계3·4동 주민자치센터 5층, 당고개역 1번 출구)
- ▷접수 : 2.2(월) 13:30 수락홀 문화공연장
- ▷수강료 : 3개월 15,000원(50%감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3급, 국가유공자 등 100%감면-새터민 가족)
(홍보체육과 ☎ 950-3100~1)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온라인 접수

- ▷기간 : 1. 28(수) 09:00 ~
- ▷방법 : 회원가입 http://gongdan.nowon.kr 후 등록
(문의 ☎ 951-9980 내선 100, 101)

아기스포츠단 단원모집

- ▷대상 : 5세(병아리반) 잔여인원 선착순 모집
- ▷시간 : 월~금(09:00-13:00)
- ▷금액 : 월회비 22만원(월재료비 1만원, 단복비 8만원)
(문의 ☎ 951-9980 내선 106, 937-9929)



문화강좌 접수

- ▷대상 : 유아 ~ 성인
- ▷강좌명 : 켈트, 동화구연, 글쓰기, 레코닥타, 바둑, 기타,칼라점토 등
- ▷기간 : 2월 19일부터
- ▷방법 : 회원가입 http://gongdan.nowon.kr 후 등록
(문의 ☎ 951-9980 내선 305)



노원교양대학

▷일시 : 1.29(목) 10:00~12:0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강의명 : 암을 예방하는 식생활
 ▷강사 : 김 영 성 (신흥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대상 : 주민 누구나(수강료 무료)
 (교육진흥과 ☎ 950-4360)

이화 - 노원여성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 2.9~2.19
 ▷대상 : 구 거주 성인여성 80명
 ▷접수방법 : 홈페이지 www.nowon.kr/lms/
 ▷수강료 : 5만원
 (교육진흥과 ☎ 950-4360)

사륜형 이륜자동차 신고

▷신고기간 : 2009. 1. 1부터
 (단 2008. 12. 31이전 제작·판매 - 6. 30까지)
 ▷신고대상 : 배기량 50cc 이상, 정격출력 0.59kw 이상
 ▷신고장소 : 사용본거지(주소지) 관할 시, 군, 구
 ▷구비서류 : 제작증,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등
 (교통행정과 ☎ 950-3995)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의무제' 시행

▷시행 : 2월1일 부터
 ▷대상 : 영입용화물자동차사업자
 ▷카드신청처 :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 지점
 (☎ 080-800-9009, ☎ 1544-7000),
 SK주유소, 우체국 - 체크카드)
 (개별화물 ☎ 973-9944, 용달화물 ☎ 980-0056)
 (교통행정과 ☎ 950-3481)

서울문화유산 안내자 양성교육

▷신청 : 1월 30일까지
 ▷대상 : 20세 이상 시민 누구나
 ▷수강료 : 12만원
 ▷교육기간 : 2.5 ~ 6.18
 ▷접수 : 방문, 우편, 팩스(☎762-0118)
 이메일(smooohwa@kornet.net)
 (서울문화사학회 ☎ 762-0155)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은
 ☎ 120 서울 다산콜센터로! (2월 2일 시행)
 북부수도사업소 ☎ 3146-3200, 국번없이 120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방법
 - 수도계량기와 배관을 헌옷 등 보온재로 감싼다.
 -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계량기함 내·외부의 틈새를 막는다.
 - 동파가 우려되면, 혹한 시 옥조의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을 적게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하면 예방된다.
 (수도계량기동파신고 : 북부수도사업소 ☎ 3146-3200)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은 내가 치웁시다 !!

노원문화의 거리 정월대보름 Art Festival

▷일시 : 2.9(18:00~19:30)
 ▷장소 : 노원문화의 거리
 ▷공연내용 :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민속공연 등
 (문화과 ☎ 950-4397)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보름맞이 행사

▷일시 : 2. 9(16:00~20:00)
 ▷장소 : 노해근린공원 내 축구장
 ▷대상 : 구 거주 청소년 및 구민 누구나
 ▷행사내용 : 민속놀이체험,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체험 프로그램 등
 (가정복지과 ☎ 950-3287)



주·정차위반 단속용 CCTV 설치신청

▷기간 : 2월13일까지
 ▷방법 : 홈페이지(www.nowon.kr) 동 주민센터 및 구청방문
 ▷설치요건 : 상습 불법 주정차 4차선 이상 도로,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 시간당 10대 이상(단, 곡선도로 제외)
 (교통지도과 ☎ 950-3486)

보건소

감기 바이러스 주의 하세요 !

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대상 : 2009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입학시 제출)
 ▷발급기관 : 접종받은 의료기관,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950 - 4050)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일반주민
 ▷지원내용 : 어린이·노인·여성 건강관리, 만성질환자와 보호자 취약가족 건강관리, 장애인물품대여,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생활습관(금연, 금주, 운동실천)관리
 (지역보건과 ☎ 950 - 3432)

A형간염 예방

▷감염경로 : A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환자의 대변을 통해 경구 감염
 ▷예방 : 개인위생 철저, A형간염 감수성이 높은자(유행지역으로 여행예정자, 만성 간질환 환자, 혈우병 환자)병·의원에서 팔히 예방접종
 (지역보건과 ☎ 950 - 4074)

구청 단신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모

▷기간 : 2월 13일까지
 ▷대상 : 형식에 제한 없이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각 동 주민자치센터, 자치행정과 ☎ 950-4138)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참여시 자동차세 5% 감면, 혼잡통행료(남산 1,3호 터널)50%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10~20% 감면,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부여
 (자치행정과 ☎ 950-3140)

노인교통수당 지급 폐지

20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확대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교통수당제도가 폐지됩니다.
 (노인복지과 ☎ 950-3280)

노원구, 통장 신분증 발급

구는 상계동 등 19개동 703개통 전 통장에게 통장신분증을 발급하고 통장업무 수행시 패용하도록 했다.
 (자치행정과 ☎ 950-3024)

시민불편 살피미

▷신고대상 : 시민안전위해, 환경오염유발, 시민생활불편, 도시미관저해, 한강시민공원, 여성불편, 관광·복지, 소방안전
 ▷신고장소 : 노원구 http://www.nowon.seoul.kr ☎ 080-9503-182
 서울시 http://cyberdasan.seoul.go.kr ☎ 국번 없이 120 (감사담당관 ☎ 950-3051, 3182)

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자지원

▷대상 : 노원구에 공장등록 한 경영자,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서 공장등록 한 경영자,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 및 입주예정 업체 포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해당업체(노원구 소재), 용자액은 업체당 2억원이내
 ▷신청 및 접수 : 1.29 ~ 2.13
 (산업환경과 ☎ 950-3370)

하이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참가자모집

▷기간 : 2.2~3.31(완료시까지 선착순 모집)
 ▷대상 : 개인, 직장, 단체 ▷농장 : 경기도 남양주시
 ▷방법 : 인터넷 접수(www.seoul.go.kr)
 ▷문의 : 서울시 ☎ 6321-4072, ☎ 3707-5385
 산업환경과 ☎ 950-3817

건물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대상 : 철거신고 및 멸실 신고에 의한 멸실 등기 대상건물 ※민원인 등기소 방문절차 생략, 등기촉탁 행정업무로 대신
 (건축과 ☎ 950-3904)

기축년(己丑年) 노원구에 바라는 소망들의 새해 소망

2009년 새해를 맞아 구민들의 가슴에도 뜨거운 희망이 솟았다.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소망 구민들을 만나 노원구에 바라는 새해 소망을 들어보았다.

김기동(상계7동, 자영업, 1961년생)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의 거리 주변을 자주 찾는 편인데, 대표적 문화명소라는 이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진취적인 문화의식과 함께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박세진, 박세웅, 박성훈, 윤제욱, 이주용(상계동, 1997년생, 소망 친구들)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 노원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대형놀이동산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운동장들이 잔디구장으로 모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김금옥(월계4동, 주부, 1937년생)



노인복지 향상에 적극적인 노원구에 감사를 드린다. 월계4동에서는 시내로 직접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한여름에 외출

을 할 때면 자동차도로까지 한참을 걸어 나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월계4동의 주민들을 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윤미란(하계동, 의류판매업, 1961년생)

건강을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등산을 자주한다.

노원구의 명산인 수락산·불암산 정상에 오르는 동안 행복감이 넘쳐나지만 쉼터에 여지없이 버려진 과일껍데기 등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산에 오르는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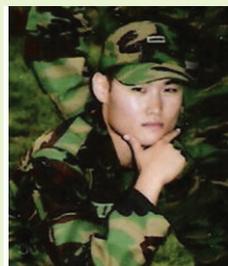


가장 살기좋은 도시 1위 명성 이어가길 ...
교육, 문화, 교통, 환경분야 향상 기대
경제활성화로 복지노원 만들길 ...

분들의 양심적인 태도를 바라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고동학(중계동, 군인, 1985년생)

노원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며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일정지역



의 집중적인 발전보다는 노원구가 골고루 발전되어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노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한명숙(공릉동, 주부 1961년생, 아들 1985년생)

중랑천을 따라 산보를 자주 나가는 편이다. 노원구에서 중랑천의 발전을 위

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시각적인 면보다는 중랑천의 생명인 물이 더 맑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노원구 주민들! 모두 힘내세요!



정요임(공릉2동, 채소노점상, 1949년생)

공릉동의 시장 입구에서 채소노점을 하고 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방안이 결정되었다고 하여 감사함과 하루하루 기대감으로 살고 있다. 빨리 실행이 되어

편안한 곳에서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취재 윤덕희 기자

나눔의 행복터 '노원두레 푸드마켓'을 찾아서 ...

갈수록 어려운 이웃이 늘어나고 있는 때다. 어느 때보다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한 번쯤 돌아보며 살아야 할 시기가 생각한다.

무료음식 나눔의 장터인 노원두레 푸드마켓을 찾았다. 노원구 주민생활지원과에 의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원두레 푸드마켓은 공릉2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2005년에 개장했다. 노원구에서 예산과 시설을 지원하고 기탁자가 직접 참여하는 두레형 시장인 노원두레푸드마켓은 성금이나 식품을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나누는 음식나눔의 공간이다.

수혜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다. 푸드마켓의 모든 물품은 무료지만 회원들이 이용하는 데는 제약을 두고 있다. 우선 이용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한 번에 살 수 있는 물품의 양도 정해져 있다.

후원자가 더 많아져 수혜 대상자 확대되길

관계자에 따르면 수혜대상자로 등록된 회원은 약

4,100명 정도이며 크든 작든 정기적으로 도와주는 후원자는 약 2,600여명이라고 전했다. 후원자의 숫자도 적은 것이 아닌데 하루에 이곳을 이용하는 회원만도 약 200여명 정도라고 한다. 이 숫



자는 다른 구에서는 한 달 동안 이용하는 숫자에 가깝다 한다. 노원구에 인구가 많은 탓도 있지만 그만큼 어려운 이웃이 많다는 얘기다.

갈수록 어려운 이웃은 많아지고 있는데 개장 당시나 지금이나 후원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어 더 많은 이웃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다는 설명이다. 노원두레 푸드마켓은 직접 잉여분의 식품을 기탁하거나 또는 개인 이라면 단돈 몇 천원으로도 부담 없이 도울 수 있는 곳이다. 꼭 식품이 아닌 의류 같은 것도 좋고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 기탁해도 된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 필요

우리 조상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두레'라는 정책을 펴서 힘든 시기를 극복했다. '노원두레 푸드마켓', 음식을 나누다는 가까운 의미로는 두레밥상을 떠올리게 된다. 모서리와 경계를 없애고 많은 이웃들과 함께 빙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큰 밥상. 옛날 시골에서는 색다른 음식 하나를 장만해도 식구들하고만 먹는 게 민망해서 먼저 이웃을 불러 두레밥상에서 나눠먹던 인심이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맛있는 음식 하나라도 식구보다는 먼저 이웃에게 베풀고자 했다. 국민소득이 얼마라고 하며 살아가는 시대이긴 하지만 아직도 배고픈 이웃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적게 가진 자가 있기에 많이 가진 자가 있는 세상이다. 지금은 식탁문화에 밀려 잘 볼 수도 없게 됐지만 그 옛날 두레밥상이 새삼 그리워지는 때다.

노원두레푸드마켓 ☎ 950-3351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201-228691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노원두레푸드마켓

취재 문영숙기자



독자기고

제2의 고향 노원 - 명품구(區)를 꿈꾸며 ...

발령장 한 장 달랑 들고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노원구 상계동에 둥지를 튼 해가 1986년, 당시엔 동부간선도로도 없었다. 전철은 배차 간격이 길어 출근 때는 '지옥철'로 변했다. 또 시내서 택시를 잡으려면 나갈 때 손님이 없어 들어오기를 꺼렸던 곳이다.



김호열 집값이 싸다보니 신혼의 등(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지를 틀고 살다 아이들이 자라 하게동거주) 먼 다들 교육 때문에 떠났다.

그런 노원에 산 지 24년째, 아들 딸 모두 이곳에서 초·중·고교를 마쳤다. 직장까지 전철로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불편함이 있어도 상계동 중계동을 거쳐 하게동으로 옮겨와 살며 노원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왜 노원에 사느냐고 물으면 나는 영풍하게도 이백의 산중문답(山中問答)을 떠올리며 소이부답(笑而不

답)이라고 감히 시선(詩仙)을 흉내내곤 했다. (問余何事棲碧山 笑而不答心自閑 問之何事棲碧山 笑而不答心自閑 問之何事棲碧山 笑而不答心自閑)

또 불암산과 수락산의 산 그림자와 중랑천 위를 떠다니는 물오리 떼를 떠올리며 신용협시의(詩) '수중문답'으로 대답을 대신하곤 했다. (... 계절도 나이도 잊은 채 /물가에 살리/ 산그늘 한가롭고 /물오리 점점 멀어 /물속 들여다보면 /거기 내 모습 안 보이고/뜯 구름만 흘러가네/ 세월은 수면 위에 정지되고 /바람도 잔잔한 오후/년 왜 예서 사노? /나는 말을 잊었네/ 생각을 잊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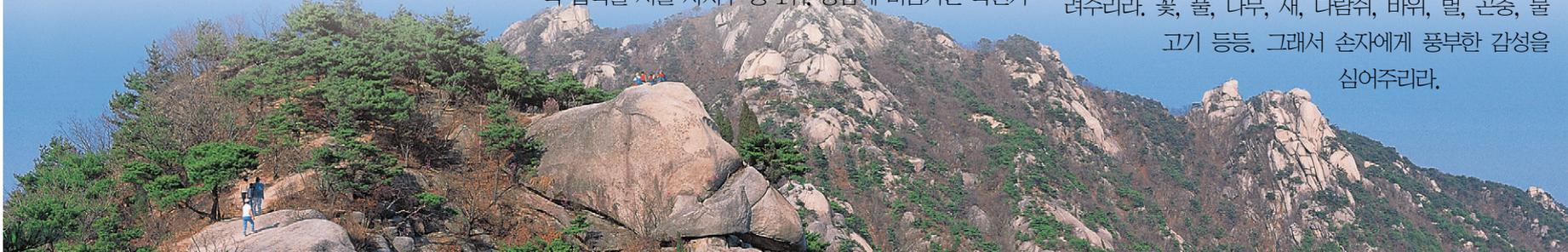
사실 이사를 안간 데는 교회와 좋은 교우 및 이웃과의 그간 쌓은 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곳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새 노원은 상전벽해라 할 만큼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특목고 전국 최다 합격, 4년제 대학 합격을 서울 자치구 중 1위, 강남에 버금가는 학원가

등 교육 경쟁력이 단연 돋보인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교육특구로 지정되고 살기 좋은 도시 전국 1위, 서울 25개구 중 범죄 없는 도시 1위 등 마스크를 통해 과거 노원구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노원의 몸값을 올리고 있는 요인이다. 상계 뉴타운, 동부간선도로 확장, 창동 차량기지 이전 정부사업 확정, 당현천 생태하천 조성, 경전철 노원선 유치, 시립미술관 분관 유치, 성북역 민자역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지역 발전 소식들이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이런 덕분에 지난해 집값 상승률도 전국 최고였다. 몇 년 전 "왜 노원에서 사느냐"고 묻던 주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노원은 집값도 오르고 살기 좋아졌으니 한 톱 내란다. 기분 좋은 소리다.

나는 꿈꾸어 본다. 이곳 살기 좋은 노원에서 공직 생활 마감 후 손자의 손을 잡고 불암산, 수락산, 당현천, 중랑천, 도서관, 과학공원 등을 다니며 많은 얘기를 들려주리라. 꽃, 풀, 나무, 새, 다람쥐, 바위, 별, 곤충, 물고기 등등. 그래서 손자에게 풍부한 감성을 심어주리라.



'한우리 가족'사업 펼치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죠

설이 얼마 남지 않은 세밑이다. 하지만 먼 이국땅에서 명절을 맞는 다문화 가정(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정)의 주부들에게는 낯선 문화와 언어, 풍습들이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2008년 기준) 100만명이 넘어 노원구에도 약 800명 정도가 우리와 이웃하여 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상계1동에 위치한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4년째 행복한 가정을 위한 사랑나눔 가족 복지사업을 통해 '한우리 가족'이란 이름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 화제다.

2006년 복지관내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일본인 결혼이민자)이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계기가 된 이 사업은 노원구청 자치행정과와 연계하여 수준별 한국어교실, 요리, 미용, 주부멘토링, 자녀지원프로그램 등의 정기 프로그램과 기초생활 적응교육, 이중언어 강점 활용 외국어강사 양성, 부부교육&상담, 가족나들이, 가족캠핑, 지역네트워크 다문화축제 등의 다양한 비정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수의 고학력을 가진 그들을 재교육하여 사회진출을 돕고, 점점 늘어나는 같은 처지의 결혼이민자들을 가르치고 돕는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 받아 이 사

업을 하고자 하는 여러 기관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지난 해 5월에는 제1회 '세계인의 날' 축제를 열어 400여 명의 다문화 가족들과 그 후원자들은 1주일 동안 '멘토들과 역사 탐방, 케익 만들기 등의 뜻 깊고



즐거운 행사를 함께하며 용기와 자신감을 키우고 우리의 이웃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일본에서 시집은 하라 나오코씨는 한국어를 비롯 여러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동시에 시혜자이며 이 프로그램의 자칭 '홍보자'라고 말한다. 주부 멘토링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서희씨는 형제 대부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다른 문화, 언어, 환경에 적응 하느라 힘들고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처음 베트남에서 시집과 8개월 된 딸을



키우던 '흐엉' 씨와의 인연은 그들 가족 구성원 전체로 이어져 "보람과 동시에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했다.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 박승찬 가족복지팀장은 "이들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편견부터 없애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로 4년째 이어온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단한 팁도 하나 알려주었다.

네이버에서 메일을 보낼 때 상단의 '해피빈'을 클릭만 해도 100원씩 자동적으로 기부되는 간편한 방법인데, 이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격려와 더불어 재정적인 지원이 더해진다면 더욱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그들을 낯선 이방인으로서의 사회적 부담의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하는 또 다른 생산적 요인이라고 우리들 스스로의 생각을 바꾼다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풍성한 사회로 거듭날 것이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 934-7711~5

취재 이양미 기자



건강칼럼 ①

손발저림, 원인파악이 치료의 지름길

손발저림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 중풍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병원외래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증상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증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다면 충분히 치료로 완치도 가능한 병이기도 하다.



이상목(신경과 전문의)

손발저림의 원인은 크게 뇌혈관계의 이상으로 인한 중추성요인과, 말초신경및 혈관의 이상으로 인한 말초성 원인으로 나눌수 있고, 심리적인 이유로도 나타날 수 있다.

중추성 요인으로 인한 손발저림은 주로 급속히 발생하고, 한쪽 팔다리뿐만 아니라 얼굴 등에 감각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력약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선행위험인자인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병이 있어 뇌 혈관의 피의 흐름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주로 마비가 오기 전에 전조증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 자주 저림이 반복된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말초성 원인으로 인한 손발저림은 감염성 질환, 혈관

성 질환, 신경 압박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손상되는 신경은 우리 몸 전체의 말초신경부터 손이나 발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말초신경질환의 특징적 증상은 마비와 통증, 저림 등이 있고, 지속적인 경우가 많다.

손과 발의 신경은 경추와 요추의 척추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허리와 목뼈의 질환은 신경을 압박하여 손발의 저림을 일으키게 된다. 요추와 경추는 우리의 척추 중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고 퇴행성 변화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이상은 흔한 손발저림의 원인이 된다.

특히 손저림의 대표적 질환인 수근관 증후군은 중년의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손의 저림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엄지손가락을 중심으로 한 근육의 약화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원인은 손목 밑의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생기게 되는데 집안일(설거지, 손빨래등)

로 손목을 많이 쓰는 여성에서 흔하며 당뇨와 같은 내분비 질환, 임신 등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다.

최근 당뇨병의 증가로 인한 당뇨병성 신경염과 혈관의 염증이나 동맥 경화로 신경으로 가는 혈액의 순환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허혈성 신경염도 신경의 질환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흔하지는 않지만 감기나 감염 이후 양하지의 끝부터 상지를 향하여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길랑바레증후군은 사지의 마비뿐만 아니라 호흡마비를 일으키는 병으로, 최근 인공호흡기의 발달과 여러 면역치료제의 개발에 힘입어 완치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많은 원인들이 손발의 저림증상을 유발하지만 각각의 원인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지나친 걱정이나 병에 대한 무관심이 병의 원인에 대한 치료시기를 늦춰 완치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완치의 지름길이다.

문의 ☎ 939-1115



중계동 '어린이 교통공원' 을 찾아서

노원구에 '어린이교통공원' 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노원구의 명소라 할 수 있는 곳 중의 하나인 이곳은 체험학습 장소로서도 좋을 뿐 아니라, 가족들의 가벼운 산책로 및 운동 장소로서도 손색이 없다.

'어린이교통공원' 은 기존의 달맞이근린공원의 부지 일부를 KBS와 공동으로 조성하고 1999년에 문을 열었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법규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만든 교통안전실습장이다.

중계역 6번출구 바로 앞에 서니 어린이교통공원입구다.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자전거 대여소. 이곳에서는 자전거를 대여해주고 있는데 신분증을 맡기면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1월은 휴관이지만 2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6시까지.

다시 눈을 돌리니 입구에서 공원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온다. 보행신호등, 차량신호등, 횡단보도, 커브길 등 실제 도로와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마치 실제 도로

로 들어선 듯 하다. 공원에서는 무단횡단 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고, 버스의 바로 앞뒤 횡단사고, 큰차가 회전하다 나는 사고, 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사고 등의 각 상황에 따른



황에 맞는 그림도 그려져 있어 어린 아이들도 이해하기가 쉽다.

체험학습의 장에서 가족공원역할까지

지금은 방학기간이라 교통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용가능 하다. 자전거를 타고 교통공원을 찾은 권석주(서울 을지초3)군은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학습도 두 번이

나 받아보았는데 말로만 설명을 듣는 것 보다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재미있었다."며 "다른 곳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위험하고 불안한데 이곳에서는 안심하고 신나게 탈 수 있다."고 말한다.

10개의 설명문이 세워져 있어 이동하면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상

또한 정찬호(서울을지초3)군은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다." 고 말한다. 봄부터 가을까지 체험학습을 하는 아이들로 붐비던 교통공원이 겨울인 지금은 가족공원으로서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다. 체험학습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족공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안쪽에는 미끄럼틀과 시소 등의 놀이시설과 간단한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으며, 24시간 누구에게나 항상 개방되어 있다. 춥다고 실내만 찾기도

다. '어린이교통공원' 으로 가벼운 외출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린이교통공원 ☎ 973-3925(www.go119.org)
취재 이미경 기자



대학생 기자
교육기관 탐방

인터넷으로 떠나는 어학연수, '노원구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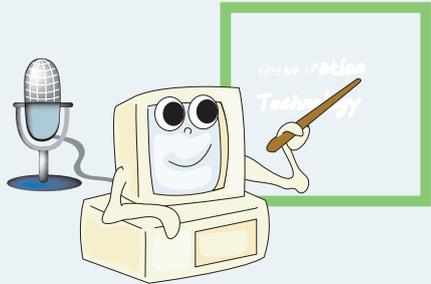
방학을 맞은 문혜원양(서울 을지초6)은 미국인 제이슨과 오늘은 영어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생각 중이다. 지난 시간에는 가수 '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제이슨이 "드라마 '플 하우스'에서 그를 본 적이 있다"며 맞장구 쳤다. 문양은 방학을 맞아 어학연수라도 떠난 것일까.

새로운 영어 공부법으로 주목받은 '화상 영어 학습'

문양은 중계동 집에서 '화상 영어 학습'을 하고 있다. 화상 영어 학습은 영어권 국가의 강사와 인터넷을 통해 화상으로 만나 영어 강의를 듣는 것을 말한다. 영어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수한 정보통신 체계라는 한국적 특수성이 만들어 낸 독특한 학습 방법인 셈이다.

이는 어학연수나 어학원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고, 전화 영어 학습에 비해 실제와 보다 비슷한 상황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어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SK, 대교와 같은 대기업, 교육 전문 기업이 뛰어들면서, '화상 영어 학습'은 영어를 배우는 새로운 방법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정부에 의해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된 노원구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관내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기초지자체 최초로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을 시행하고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영어권 국가이면서 우리나라와 시차가 1시간에 불과한 필리핀의 '노원구 화상학습센터'의 원어민 강사와 화상을 통해 실시간 수업을 받게 된다. 녹화된 동영상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보며 실시간으로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높다. 게다가 한 수업에 강사 1명당 학생이 최대 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민약 지정된 시간에 접속하지 않으면, 즉시 서울에 있는 '학습 콜 센터'의 '학습 매니저'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문양은 "어학원에서는 학생이 많아 외국인 선생님과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화상 학습은 집에서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대화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문양의 어머니 안영희씨는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에 대해 "영어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덜고,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켜볼 수 있는 것이 만족스러워 주변에 많이 추천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노원구의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홈페이지(www.nise.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월 수강료는 5천원(교재비 월 9천 5백원)으로 단계별 교육기간은 각각 4개월이며, (총 여섯 단계) 저소득층 수강자에게는 교재와 수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장비를 무상 지원한다.

한편 출결사항이 우수하거나, 뛰어난 성적 향상을 이룬 학생에게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미국과 필리핀으로의 어학연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과 관련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교육진흥과☎ 950-4353로 문의하면 된다.

취재 김주락 기자



독자투고

올바른 엄마의 역할은...



박미진(월계3동)

"또 그 소리! 엄마, 이제 너무 지겨워...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에이 그냥 각 00000!"

며칠 전 아이 방 청소를 하다가 방바닥에서 우연히 발견한 종이쪽지를 보고 기절할 뻔했다. 볼펜으로 열심히 지운 낙서였지만 그 속에 흘러간 글씨를 꼼꼼히 읽어보니 "에이 그냥 각 00000!"이라는 대목에서 숨이 멎는 듯 했다. "혹시 '죽어버릴까' 이런 말이 아니었을까"하는 글 같아서 들고 있던 진공청소기 손잡이를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모두 제 녀석 잘되라고 한 두마디 한 건데 그게 잔소리로 들렸다고? 서운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했다. 그날 이후 학원에서 늦게 돌아온 아들 얼굴을 보니 사흘 굶은 시어미상이라는 옛말이 떠올랐다.

이제 중학교에 들어갈 녀석이 얼마 전 학원에서 돌아오자마자 PC를 켜고 게임에 몰두한다. 짧으면 한 시간이지만 길면 두 세시간 꼼짝 않고 PC앞에서 죽치고 있는 아이.

그러나 당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평소 같으면 "너 널모레면 중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게임이나?"고 다툼을 하고도 남았겠지만 이제 좀 참으며 지켜보기로 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속담이 있다. 몸의 상처야 치료하면 그만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옆질러진 물 같아서 두고두고 아물지 않은 채 가슴 깊은 곳에서 평생의 생채기로 남을 수 있음을 일컫는 말이다.

며칠 전 모 대학교의 사회 복지관에서 하는 강의를 들으러 갔다.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자녀들이 불행하길 바라는 부모는 결코 없지만,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는 적지 않다는 강사의 말이 귀에 쏙 박혔다. 그동안 아이에게 했던 말들이 내 판에는 '사랑의 가르침'이었지만 아이가 받아들이기엔 마

음의 상처를 주는 잔소리'로만 켜켜이 쌓이진 않았는지 돌이켜 봤다. "OO는 반장도 하고 1등도 하는데 너는 뭐하는 거니?" "게임만 하면 밥 먹여 주니?"라고 했던 그동안의 잔소리들이 스크린처럼 재생돼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다.

앞으로는 아이를 믿어주고, 실수를 하면 위로해주기로 했다. 또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줄 것이다. 특별히 격려할 것이 없다면 만들어 내서라도 격려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잔소리를 하지 않는 대신 내게 잘 할 수 있는지 보여 달라고 하리라. 아이를 믿고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 것이다.

오늘 아이에게 과일을 갖다 주며 표정을 살폈더니 이 녀석 "엄마, 요즘 좋은 일 있어? 엄마가 매일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 헤헤"라며 좋아한다. 참, 내! 녀석도...

